

## 초대의 글

우도창작스튜디오는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와 전시 공간, 작업실 등 창작 생활공간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 공간에 입주한 3명의 예술가가 1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그동안 예술가들은 섬이라는  
특정 공간에 '거주'하면서 감각하고 사고하였다.

김영글은 사물과 풍경에 인간이 부여해온 다양한 층위의 의미를 연구하고  
이호억은 침전의 시간에서 사생수묵으로 주체의 위치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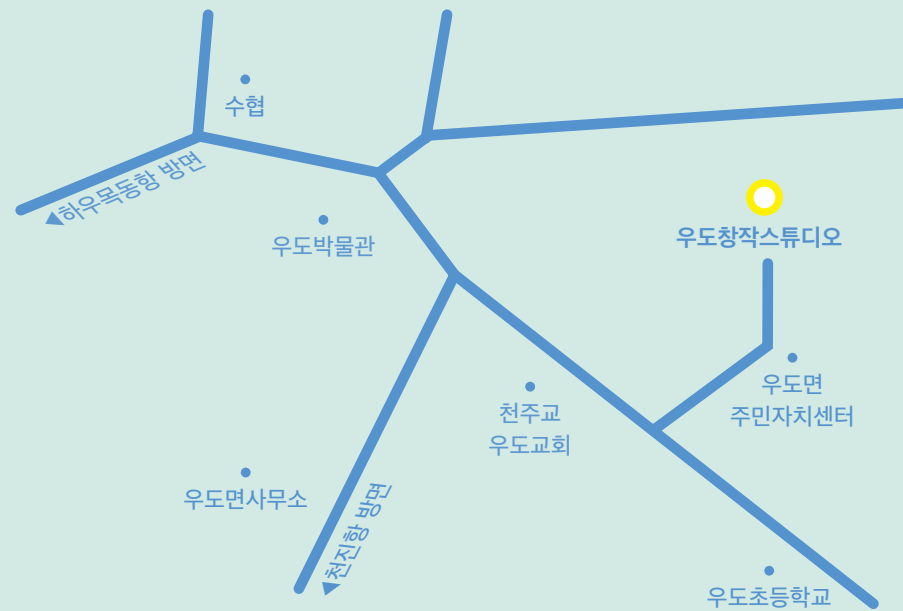
자우녕은 파편처럼 조각내어 완성시키는 시간성과 대면한다.

하여 오늘, 사진과 텍스트, 화선지와 먹, 영상과 오브제로 제시된다.

스튜디오 앞마당에는 각자가 마주했던 시간과 공간을 기념하고  
새로운 시선의 방향을 상상하기 위해 작은 깃발들을 꽂아본다.

여름의 끝자락을 장식하는 전시 <바람의 뼈>는

우도 주민과 여행객 모두에게 열려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일시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 9월 1일 일요일  
관람시간: am11:00 am - pm07:00  
오프닝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pm06:30  
장소 우도창작스튜디오 | 제주시 우도면 영일진사길 15-5



# 바람의 뼈

우도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2019.08.29 목요일  
- 09.01 일요일

김영글 이호억 자우녕





김영글 . impossiblestory@gmail.com

문학과 미술을 전공했다. 순간을 보듬는 법을 가르쳐주는 고양이 세 마리와 살고 있으며, 2018년 봄부터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2019년 여름, 돌이라는 사물에 인간이 부여해 온 다양한 의미를 채집하고 아카이브로 재구성한 개인전 <사로잡힌 돌>을 서울시립미술관 세마창고에서 열었다. 최근에는 제주에서 기록한 일상의 풍경을 사진 일기로 정리하고 있다.



Between Islands | 디지털 C-프린트 | 254×380mm | 2019



이호억 . wellshoyi36@hanmail.net

한국화를 전공했다. 디지털과 집단을 극복하는 것이 작업의 화두다. 한국화 혹은 국가에 함몰되지 않고 주체의 위치를 밝히고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침전의 시간에서 작업한다. 자신의 시선과 내면을 믿고 결행한 섬 프로젝트는 2017년 수덕사를 시작으로 원시 섬 야쿠시마와 2018년 제주 모슬포에 이어 2019년 우도로 이어지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1회 광주화루 대상을 수상했고, 일곱 번의 개인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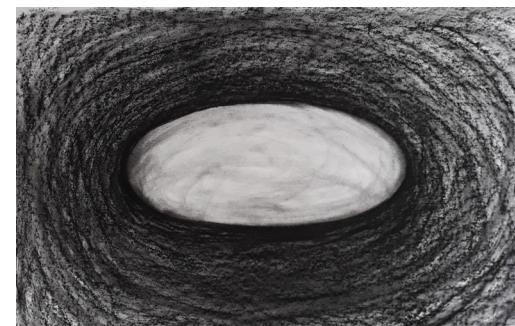
수면아래 별천지 | 크라프트지에 먹 | 210x575mm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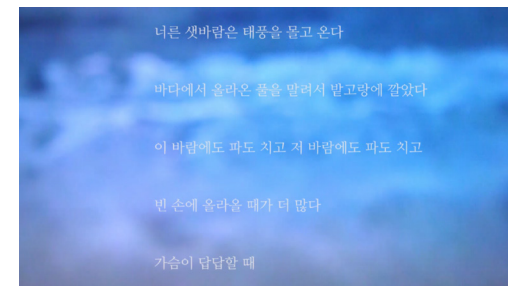
바람의 뼈\_말머리 | 장지에 식물성 염료와 먹 | 495x995mm | 2017

자우녕 . lamerrr@naver.com

비디오 아트와 영화를 전공하였으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다. 지역민과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작업매체를 선택하며 예술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우도에서의 작업 역시 예상치를 뛰어 넘어 영상과 텍스트, 섬에서 모은 오브제를 이용하여 생과 토양, 날씨의 풍화작용을 담아내었다. 2019년 <유리병의 편지>외 7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물이 맑으면 물 위에서도 보인다 | 가변설치 | 2019



이 바람에도 파도치고 저 바람에도 파도치고  
video 3min15, single channel  
2019